



## 산업보건 주요뉴스



###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 중량물 이송 보조를 위한 '플렉스리프트' 공동 개발, 상용화 도입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삼인이엔지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트 노동자의 중량물 이송을 보조하기 위한 진공흡착식 전동대차 타입의 '플렉스리프트'를 개발·상용화한다고 밝혔다. 플렉스리프트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고 내릴 수 있도록 진공 흡착 기술을 도입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운반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경량 전동대차를 활용해 기능을 극대화했다. 전동대차를 이용해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도 힘들이지 않고 운반할 수 있어 기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져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A/S 또한 편리하다.

또한 배터리가 내장되어 전기·압축공기를 연결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 방지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뿐 아니라 중량물 취급 과정의 부상·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간단한 조작방식과 빠른 작업속도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적용 가능한 신개념 중량물 운송장비가 될 전망이다.

\*해당 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배포한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 전국 중소기업장 불시에 안전 점검한다 '패트롤 현장점검' 본격 착수, '3대 안전조치' 점검·불량현장 감독연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기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추락·끼임 사고사망 비중: ('17) 48.5% → ('18) 50.3% → ('19) 53% → ('20) 48.3% (잠정)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6만 → 7만회)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20년 108대→'21년 404대

건설업은 120억 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 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 핵심 고위험작업: ①비계+작업발판, ②철골·트러스, ③지붕·대들보+슬레이트지붕, ④달비계 등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한다.

\* 10대 위험기계기구: ①크레인, ②컨베이어, ③리프트·승강기, ④사출기, ⑤프레스, ⑥지게차, ⑦혼합기, ⑧파쇄기, ⑨식품제조용 설비, ⑩산업용 로봇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대표적으로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위험한 기계\* 교체와 노후된 위험공정\*\* 개선비용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위험기계 교체대상: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 노후 위험공정 개선대상: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 뿌리산업 관련 사업장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전국 중소기업장 불시에 안전 점검한다"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제외 질병 확대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애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애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식 보기

: 산업보건 주요뉴스

###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기존에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있어,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였다.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1.)"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 택배 4개사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점검

- 과로방지, 산재예방 등 택배종사자 보호조치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이행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9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주요 택배사\*의 택배종사자 안전·건강 보호조치를 점검했다.

\*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이날 점검은 설 성수기 안전과 건강 관리\*,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인력투입·택배물량 조정 등 과로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실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 등 2020년 10월~11월 실시한 '택배업 산업안전감독'에 따른 시정 지시 이행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 개선 등

주요 택배사들은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분류지원인력 6,000명 총원이 약속한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동승인력 증원, 택배차 증차, 택배기사 배송물량 점검·조정 등 업무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보건조치 개선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이재갑 장관 택배 4사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점검"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